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1차 조사 결과 보고서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조사는 대통령 선거의 관심 및 투표참여 행태, 선거 분위기 등에 대한 유권자 의식과 태도를 조사하여 향후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공명선거 실현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규모	· 총 1,500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5\%$ Point
조사 방법	·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표본 추출	· 성·연령·지역 인구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
표본 프레임	· 유선전화 RDD + 무선전화 RDD (Dual Frame)
응답률	· 16.9% (유선전화 12.3%, 무선전화 26.7%) ※ 응답률=(응답완료)/(응답완료+거절+중단) X 100
조사 기간	· 2017년 4월 10일(월) - 11일(화) (총 2일간)

3. 조사 내용

구분	조사 항목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식	▪ 제19대 대통령선거 관심도
	▪ 투표 참여 의향
	▪ 사전투표 인지도
	▪ <투표참여 의사층만> 투표 예정일
	▪ <사전투표 예정자만> 사전투표 이유
	▪ <사전투표 예정자만> 사전투표 예정일
	▪ 사전투표가 없을 경우, 투표일 참여 여부
	▪ <비투표의사층만> 투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선거·투표 효능감	▪ 선거가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 선거가 일상생활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선거에서 내 한 표의 중요성
투표 시 고려사항	▪ 후보 선택 시 중요 고려사항
	▪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 획득 채널
공명선거 인식	▪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성 평가
	▪ <부정 평가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선거범죄 관련 제도 인지도
	▪ 관련 제도의 신고/제보에 미치는 영향
	▪ 신고 및 제보 의향
	▪ 정치 후원금 기부 의향

4. 표본 특성

		계	
		사례수	%
전체		1,500	100.0%
성별	남성	743	49.5%
	여성	757	50.5%
연령별	만19-29세	261	17.4%
	30대	267	17.8%
	40대	310	20.7%
	50대	298	19.9%
	60대	192	12.8%
	70세 이상	172	11.5%
권역별	서울	296	19.7%
	인천/경기	446	29.7%
	대전/세종/충청	161	10.7%
	광주/전라	150	10.0%
	대구/경북	153	10.2%
	부산/울산/경남	232	15.5%
	강원/제주	62	4.1%
직업별	화이트칼라	388	25.9%
	블루칼라	214	14.3%
	자영업	298	19.9%
	가정주부	40	2.6%
	학생	312	20.8%
	농림수산업	100	6.7%
	무직/기타/무응답	148	9.8%
학력별	중졸 이하	195	13.0%
	고졸	372	24.8%
	대재 이상	908	60.5%
	모름/무응답	25	1.7%
소득별	200만원 이하	302	20.1%
	201-500만원 이하	618	41.2%
	501만원 이상	360	24.0%
	모름/무응답	220	14.7%

5. 가중값 배율

		목표할당(A)		조사완료(B)		가중값 배율(A/B)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500	100.0%	1,505	100.0%	1.00
성별	남성	743	49.5%	755	50.2%	0.98
	여성	757	50.5%	750	49.8%	1.01
연령별	만19-29세	261	17.4%	238	15.8%	1.10
	30대	267	17.8%	250	16.6%	1.07
	40대	310	20.7%	312	20.7%	0.99
	50대	298	19.9%	318	21.1%	0.94
	60대	192	12.8%	208	13.8%	0.92
	70세 이상	172	11.5%	179	11.9%	0.96
	지역별	서울	296	19.7%	295	19.6%
부산		103	6.9%	102	6.8%	1.01
대구		73	4.9%	73	4.9%	1.00
인천		85	5.7%	83	5.5%	1.02
광주		41	2.7%	41	2.7%	1.00
대전		43	2.9%	44	2.9%	0.98
울산		33	2.2%	33	2.2%	1.00
세종		12	0.8%	12	0.8%	1.00
경기		361	24.1%	366	24.3%	0.99
강원		44	2.9%	44	2.9%	1.00
충북		46	3.1%	46	3.1%	1.00
충남		60	4.0%	60	4.0%	1.00
전북		53	3.5%	54	3.6%	0.98
전남		56	3.7%	56	3.7%	1.00
경북		80	5.3%	82	5.4%	0.98
경남		96	6.4%	96	6.4%	1.00
제주		18	1.2%	18	1.2%	1.00

Ⅱ.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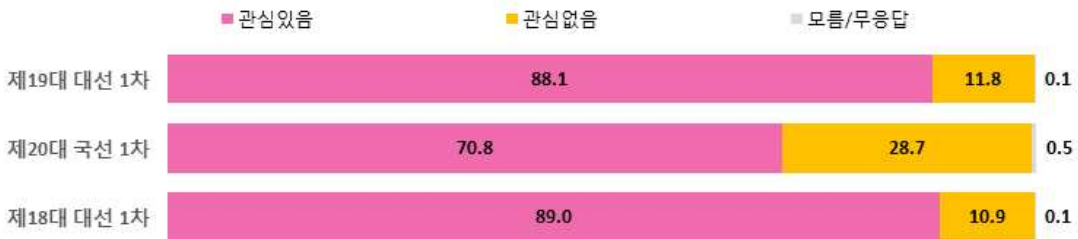
1. 대통령선거 관심도 및 투표참여 의향

■ 대통령선거 '관심 있다' 88.1%, 반드시 투표 82.8%

- 20-30대 연령층 투표의향 제18대 대선 대비 큰 폭 상승

- ▶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1%가 '관심 있다'(매우 관심 61.1% + 약간 관심 27.0%)고 응답해, 제18대 대선(89.0%)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제20대 국선(70.8%)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임
- ▶ 한편,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층은 82.8%로, 제20대 국선(63.9%)과 제18대 대선(78.2%)에 비해 높았음
: 20-30대의 선거 관심도 및 투표의향이 모두 80%를 상회하여 지난 선거 대비 크게 상승한 반면, 60세 이상의 관심도 및 투표의향은 다소 감소함

< 제19대 대통령선거 관심도 (n=1,500, %) >



<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의향 (n=1,500, %) >



연령별 (%)	사례수	대통령선거 관심도			적극 투표 의향		
		제19대 대선	제18대 대선	증감률	제19대 대선	제18대 대선	증감률
전체	1,500	88.1	89.0	-0.9	82.8	78.2	+4.6
19 - 29세	261	84.5	84.5	0.0	84.2	65.7	+18.5
30대	267	89.0	88.1	+0.9	80.9	71.1	+9.8
40대	310	90.9	87.3	+3.6	81.7	75.4	+6.3
50대	298	88.6	90.0	-1.4	82.7	85.3	-2.6
60대	192	89.8	94.6	-	84.7	92.3	-
70세 이상	172	83.9			84.0		

※ 제18대 대선의 경우는 60대·70대 이상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음

■ 투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 없어'

- ▶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생각이 없다'(별로 없다 + 전혀 없다, n=55)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40.4%)를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28.4%),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15.5%), '개인적인 일/출근'(12.4%) 등을 꼽았음
- ▶ 한편,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제20대 국선 및 제18대 대선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함

< 투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비투표 의사층 : n=55, %) >



역대 선거 "비투표" 이유(%)	제19대 대선	제20대 국선	제18대 대선
	(n=55)	(n=160)	(n=179)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40.4	52.9	39.8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28.4	7.8	12.9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15.5	15.5	26.7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12.4	9.3	11.8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1.7	7.9	0.0
기타	1.6	6.6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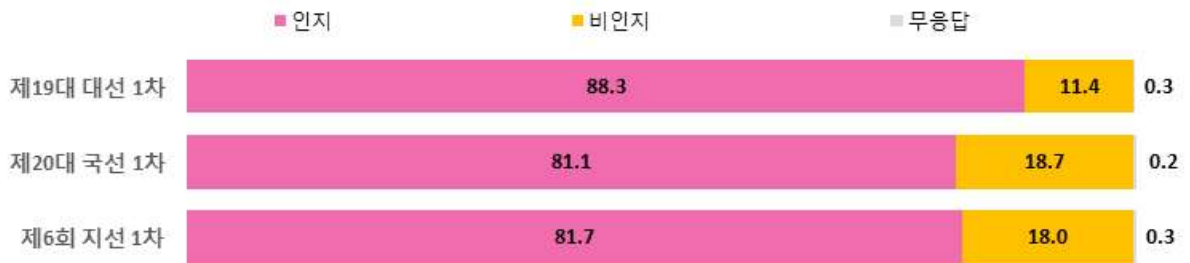
2. 사전투표 인지도 및 투표 예정일

■ 유권자 10명 중 9명은 사전투표 '알고 있다'

- 사전투표 의향층의 14.8%는 '사전투표 없으면 투표 못해', 투표율 제고 기여

- ▶ 5월 4일-5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대해 유권자의 44.5%가 '잘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여 제20대 국선(33.9%) 대비 약 10%p 상승함. 또한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32.1%, '이름정도만 들어봤다'가 11.8%로 나타나 유권자의 88.3%는 사전투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투표 의향층의 2.8%는 사전투표가 없을 경우 '투표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투표 의향층(적극+소극) 중 '사전투표 할 계획'이라는 유권자(n=246)의 14.8%는 사전투표가 없을 경우 투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음

< 사전투표 인지도 (n=1,500, %) >



사전투표 인지도(%)	잘 알고 있었다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름정도만 들어봤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무응답
제19대 대선	44.5	32.1	11.8	11.4	0.3
제20대 국선	33.9	31.0	16.2	18.7	0.2
제6회 지선	34.0	31.3	16.4	18.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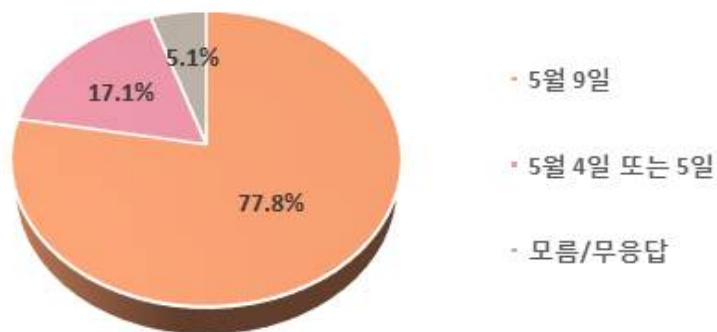
< 사전투표제도의 투표참여제고 효과 (투표 의향층 : n=1,436, %) >



■ 투표 의향층의 77.8%는 5월 9일 선거일에 투표 사전투표 의향층은 연휴 시작 전인 5월 4일 투표가 절반 이상

-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의향이 있다는 유권자 중 77.8%는 '선거일인 5월 9일에 투표 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17.1%로 나타남
- ▶ 사전투표 의향층(n=246)의 사전투표 예정일은 연휴가 시작되는 5월 5일 금요일 (27.4%)보다 5월 4일 목요일(57.6%)이 더 많았음
- ▶ 한편, 사전투표를 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사전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가 3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거일 투표 불가'(20.9%), '선거일에 근무'(18.7%), '주민등록 거주지가 달라 투표 어려움'(14.9%) 등의 순임

< 투표 예정일 (투표 의향층 : n=1,436, %) >



< 사전투표예정자의 사전투표 행태 (사전투표응답자 : n=24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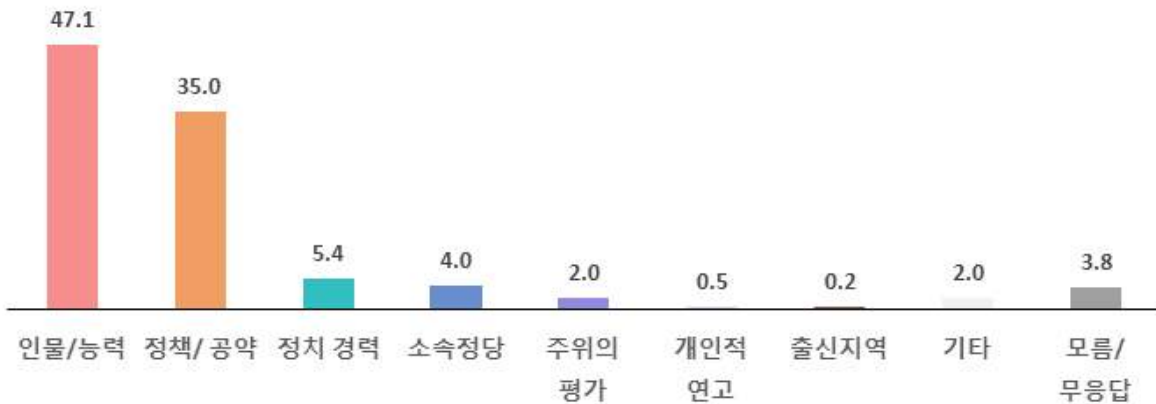
3. 후보 선택 시 고려 사항

■ '인물/능력', '정책/공약'이 지지후보 선택 시 가장 중요

- 역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후보의 인물/능력, 정책/공약에 집중
-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는 주로 TV와 인터넷을 통해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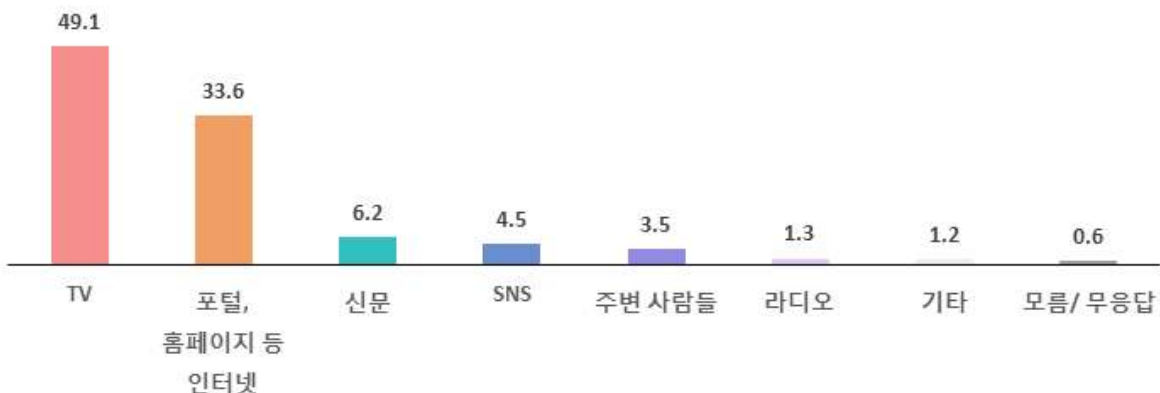
- ▶ 이번 대통령선거 지지후보 선택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물/능력(도덕성)'이 47.1%, '정책/공약'이 35.0%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정치경력'(5.4%), '소속정당'(4.0%) 등은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 ▶ 한편, 후보자 선택 시 필요한 정보를 얻는 채널로는 'TV'(49.1%)와 '포털, 홈페이지 등 인터넷'(33.6%)이 가장 많았음

< 후보 선택 시 고려 사항 (n=1,500, %) >



후보 선택 기준 (%)	인물/능력	정책/공약	정치 경력	소속 정당	주위의 평가	개인적 연고	출신 지역	기타	모름/무응답
제19대 대선	47.1	35.0	5.4	4.0	2.0	0.5	0.2	2.0	3.8
제18대 대선	28.8	44.6	10.2	4.8	5.4	0.6	0.4	1.6	3.5
제17대 대선	41.6	33.7	5.3	8.0	5.0	0.8	0.6	1.3	3.7

< 후보 선택에 필요한 정보 획득 채널 (n=1,500, %) >



4. 선거 · 투표 효능감

■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내 한 표가 '중요하다'고 인식

-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를 결정 64.9%, 일상생활과 삶의 질 결정 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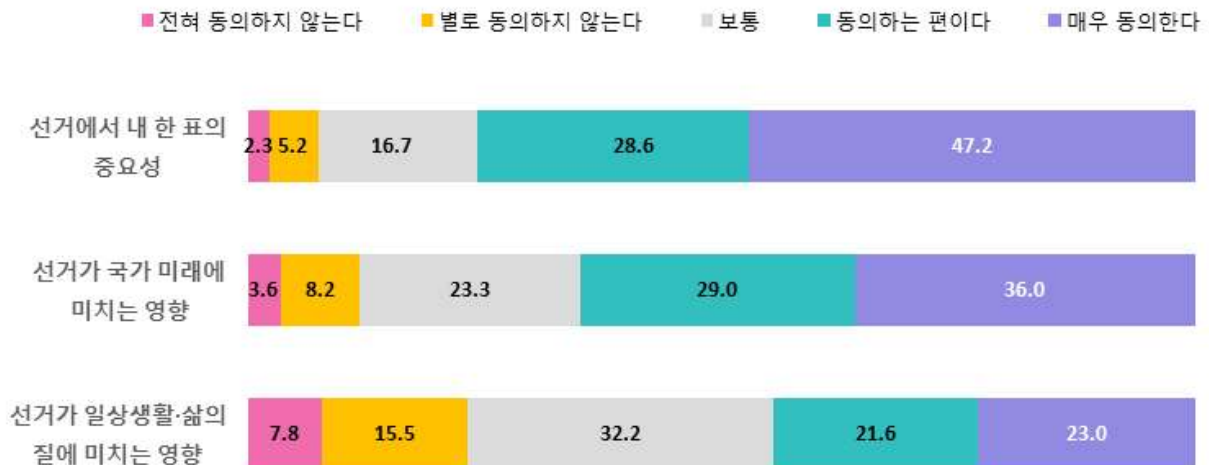
▶ 선거·투표 효능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대해 유권자의 75.8%가 동의한다고 응답함

: 직접적인 투표 행위(내 한 표)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보임

▶ 또한,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유권자의 64.9%, '선거를 통해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44.6%가 동의한다고 응답함

: 선거 과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거시적 효능감(국가 전체 미래)은 공감하는 것으로 보이나, 나의 일상생활·삶의 질에 대한 직접적 변화 기대감은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음

< 선거·투표 효능감 (n=1,5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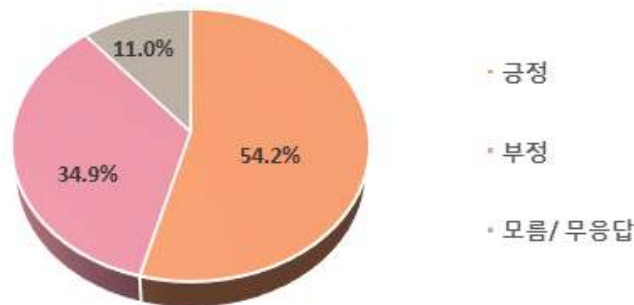
5. 공명선거 인식

■ 이번 대통령선거 '깨끗하게 치러지고 있다' 54.2%

- 역대 대선 대비 긍정 평가 상승, 선관위 등 관련 기관의 지속적 관리·감독 필요

- ▶ 이번 대통령선거의 분위기에 대해, '깨끗하다'는 긍정 평가가 54.2%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깨끗하지 못하다'는 부정 평가는 34.9%로 나타남. 선거 분위기 부정 평가자(n=528)는 그 이유로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39.3%),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31.5%)를 꼽는 의견이 많았음
- ▶ 한편, 역대 선거 대비 선거 공명성에 대한 긍정 평가가 상승한 점을 볼 때, 짧은 대선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련 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성 (n=1,500, %) >



< 공명하지 않은 이유 (깨끗하지 못함 응답자 : n=528, %) >



연령별 (%)	대통령선거 공명성		공명하지 않은 이유_TOP3		
	공명함	공명하지 못함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 및 흑색선전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후보자 팬클럽, 산악회 등 사조직
제19대 대선 1차	54.2	34.9	39.3	31.5	8.0
제20대 국선 1차	33.5	53.5	34.4	19.9	6.7
제6회 지선 1차	49.3	34.2	30.9	24.8	4.4
제18대 대선 1차	52.9	35.4	40.7	15.0	-
제19대 국선 1차	38.8	43.7	47.4	18.3	-